

현대적 해석으로 열어보는 고전의 세계

쉽게 풀이한 책들 인기 ... 출판사들마다 고전 번역작업 착수

원시인들이 자연의 소리에 민감했듯 옛 성현들은 진리의 흐름에 더욱 가까웠을 터다. 그러기에 몇천년 전의 한마디 말을 곱씹기에도 후손들은 지침이 없는 듯하다. 옛것에 대한 그리움은 최근 우리의 출판흐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우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자」의 본질을 풀이한 「莊子—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둥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줄곧 베스트셀러 1, 2위를 지키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후, 「현대감각」에 맞춰 풀이한 동양고전들이 급속히 증가, 현재 서점에는 십여종이 넘는 책들이 나와 있다. 이들은 모두 산뜻한 표지장정에 순우리말로 표현된 제목을 달아 古典의 무게에서 오는 '고리타분한 교훈'의 이미지를 벗어나 있다.

'쉬운 풀이'로 대중속에 파고들며

이 가운데 「노자」와 「장자」를 풀이한 책들이 가장 많은데, 「학의 다리...」를 펴냈던 유재근교수가 그 후속편 격으로 내놓은 「털끝에 놓인 태산을 어이할까」(둥지)에도 계속 독자들의 잦은 손길이 닿고 있다. 「장자를 이야기로 읽었다. 장자를 사상으로 읽게 되면 심오하고 그윽한 속뜻을 헤아려야 하므로 무척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로 읽으면 무척 재미가 있고 즐겁고 슬기롭게 한다」고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옛날 얘기 듣듯이 장자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우화를 통한 장자해석 방법을 시도한 또하나의 책으로 「장자 道를 말한다」(예하)는 禪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라즈니쉬가 장자 속에

등장하는 우화의 각 구절을 인용하면서 강의 식으로 장자사상을 해설하고 있어 색다른 관심을 끈다. 장자와 선사상과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데, 이 점에서 연전에 나온 「선사와 함께 엮은 莊子」(김달진/고려원)와 상통하는 바 있다.

장자와 더불어 '도' 사상의 증핵으로 「노자」를 꼽는다. 「道, 성서와 함께 읽는 노자」(예인들) 또한 좁게는 도를 밝힌 '성서'로서, 넓게는 동서와의 만남이라는 이색차원에서 「노자」를 소개한다. 책의 양쪽 여백에 '帛書老子'를 선보이는 한편, 도와 덕이 내포하는 사상을 作為文化에서 無爲文化로의 회귀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독특하다.

「노자」사상의 으뜸을 "허무자연의 오묘한 도"라 일컬으며 불교사상을 연구했던 명나라 때 고승 慈山德淸大師의 주석서를 원문과 함께 풀어놓은 「老子, 그 불교적 이해」(송찬우/세계사)와 「감산의 老子풀이」(오진탁/서광사)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의 심연이 맞아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감산(1546-1623)의 주석서는 출가 이후 불교경전을 유가와 도가문헌과 함께 연구하여 자신이 체득한 道로써 노자를 해석했고, 각 단락 사이에 흠뻑 젖어 있는 사상을 일관된 논리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으뜸으로 내세워진다.

서광사에서는 慈山의 주석서로 「감산의 莊子풀이」와 사진과 함께 보는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도 내놓아 동양고전과 대중의 만남을 새로운 차원에서 영어보인다. 영어본을 텍스트로 한 「노자 도덕경」은 81장 5천여자에 걸친 도덕경의 원문을 시적 문장으로 옮김과 동시에

무위한 자연의 모습을 흑백염영으로 포착한 사진을 함께 실어 색다른 감흥으로 「노자」를 읽을 수 있다. 끝이어 「장자」 「법구경」도 출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양고전의 대중화에 한몫을 하는 몇권의 책들을 더 꼽을 수 있다. 공자와 제자간의 대화 학습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논어 속에 정화된 동양정신의 뼈대를 읽기 편하게 소개한 「재미있는 논어이야기」(지평)를 비롯해 「논어는 재미있고 공자님은 부끄럽다」(우석) 「공자입니다, 성스러운 俗人」(일선기획) 등도 이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노자의 道 속에서 경영자의 윤리를 꼬집어내 풀이한 「흐르는 물은 가두지 마라」(황제)같은 책도 눈에 띈다.

소설적 상상력으로 동양사상 재조명

한편 고전의 난해함을 쉽게 풀이하는 선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예 소설로 다시 꾸민 이채로운 시도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설가 조성기씨에 의해 이뤄진 「屈原의 노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한길사)가 바로 그것. 이미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를 소설화한 「전국시대」(고려원, 전5권)에서 상당한 독자를 끌어모은 작가의 새로운 이 두 소설에는 「중국고전사상 소설」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다.

「굴원의 노래」는 작가가 전국시대 전체를 훑는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초나라 시인 굴원의 일생을 담은 소설. 굴원의 모든 시와 관련된 책을 눈에 띄는 대로 읽어 그의 생애를 유추, 복원한 인물소설로서 작가가 말하듯 "소설이 라기보다 소설의 형식을 빌린 시해설"에 가깝

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는 '맹자와의 대화'라는 부제가 말하듯 맹자와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 맹자의 가르침을 소설적 구성으로 재조명한 것. 당시의 시대상황에 깔린 성선설, 호연지기론 등의 사상을 대화적 상상력에 의해 잘게 나누어 일관된 줄거리로 엮음으로써 독자들은 훨씬 긴장감 있게 맹자를 이해하게 된다. 독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작가는 「장자」 「열자」 「한비자」 등도 소설로 형상화하겠다는 의욕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동양고전의 대중용도서 발간을 보는 시각은 둘로 갈린다. 즉 동양고전의 저변확대란 차원에서 적극적 입장과 베스트셀러를 노린 '상업출판'이라는 비난의 눈길이 그것. 이영준씨(민음사 주간)는 "동양사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도를 안 한 것보다 좋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고전을 엘리트시즘에 가둬 놓았던 것은 아닐까"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독서대중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이론의 깊이를 망각한 채, 표피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현재의 불균형에서 벗어나 이론과 대중을 위한 도서가 병존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의 자리찾기를 강조하는 김태경씨(이론과실천사 대표)는 출판사들의 상업성 편승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아무튼 그에 대한 판단은 동양고전의 세계에 발들어 놓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맡겨야 할 일이다.

단행본 출판사들마다 번역기획 마련

이와는 별개로 출판사들마다 동양고전에 대한 관심을 원문해석, 주석의 번역작업 등으로

오태영長篇小説

사요나라 기꼬

1990년 6월 29일 기꼬는 황태자비가 되었다.
1987년 1월 15일 박종철은 물고문으로 죽었다.
도대체 이 두 사건은...

박종철과 물고문, 권인숙과 성고문 - 암울했던 그시절, 인간의 고기를 먹고 자궁속으로 도피했던 한 지식인은 절규한다.
그의 죄의식은 짐승의 관능과 외설에 뒤엉켜 스스로를 연기하고 변명한다.
남과 여의 섬뜩한 오르가즘에 얼룩진 관능의 에피소드로 일본의 순결을 짓밟으며...
설익은 애정의 논리, 휴머니즘의 껍질을 버리고 인간과 시대의 병리를 파헤친 잔혹한 소설미학 -
그 파행적 관능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값 3,800원

지금 서점에서 만나 보십시오.

소담출판사

TEL: 925-3610 FAX: 924-3236



이들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주로 직역 위주, 본문해석에 급급했던 예전의 판본과 달리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말 사용과 현대적 문장해석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출판사의 기획의도는 같은 선을 달린다. 충실한 번역과 주석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투자될 「사서삼경」 번역작업을 계획중인 곳은 민음사, 비봉출판사, 이론과실천사 등등.

사회과학류를 주로 출판했던 이론과실천사(대표 김태경)는 「중용」「대학」「논어」의 원고가 2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사서와 삼경을 모두 완간하고 대중용 읽을거리로서 「노자」「장자」도 기획중. 기존의 판본이 대개 朱子가 集註한 것을 완역한 정도에 그친 데 비해 출판사측은 출전과 인용어귀 등에 상세한 풀이를 하고 경전해석에 대한 異說도 정리, 중

합적 해석으로 총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도서들을 많이 냈던 비봉출판사(대표 박琪鳳)도 마찬가지. 「논어」 등의 「사서」만을 번역할 계획인데 “옛 주자학이나 성리학에 근거한 주석을 그대로 답습한 채 문장만 현대언어로 바꾸는 식”이 아니라, 주자학 관점의 풀이에서 벗어나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할 동양고전시리즈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겠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司馬遷의 「史記」는 10권중 3권이 올해에 선보일 듯하고, 은둔·비물질 성향의 노장사상과 현대 경제발전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저서도 구상하고 있다.

민음사(대표 朴孟浩)는 “동양고전을 대중화하겠다”는 기본입장에 서서 학계의 인정을 받을 만한 번역본을 내놓기 위해 번역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83년에 출간한 바 있는 「山海經」을 다시 손질해 내놓고 鄭在書(이화여대 중문과) 교수가 역주한 「抱朴子」「여씨춘추」 등이 원고상태에 있으며, 「論語新解」에 이어 「孟子新解」가 金鍾武웅의 주석으로 교정 단계. 이밖에 「주역」도 金仁煥(고려대)교수 번역으로 준비중이어서 여름이면 이들 책이 모두 쏟아질 모양이다.

東文選(대표 辛成大) 역시 고급한 독자를 대상으로 학문적 의미가 깊은 동양고전의 번역본을 낼 계획인데, 대만에서 공부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집필중이다. 70년대 새로 발굴된 「老子」 판본 「帛書老子」의 번역서도 곧 나올 예정. 「帛書老子」는 지금까지의 것중 가장 오래된 노자본으로 꼽혀 원문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중국 고전소설 「星草」(全5卷)를 5월중에 완간하고 四大奇書의 하나인 「금병매」의 완역작업도 한창 진행중이다.

이밖에 현암사, 삼성출판사, 범우사, 을유문화사 등에서 이미 사상전집 또는 문고, 신서의 형태로 출간됐던 것들을 새롭게 가로조판으로 바꾸고 표지도 감각에 맞게 꾸미면서 계속 동양고전들의 번역서를 내놓고 있다. 예전 판본을 그대로 출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현암신서」 시리즈는 오역 바로잡기와 문장다듬기, 순우리말 사용 등에 신경을 쓰는 재번역작업을 거쳐 출간하고 있다. 3월중 나올 「장자」를 비롯해서 「阿含經이야기」「미란타王問經」 등 불교도서 경전풀이도 선보이게 된다.

출판사들의 동양고전에 대한 이즈음의 집중적 의욕은 주로 70년대에 이뤄진 번역본에 대

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됐고, 따라서 현대감각에 맞는 문장으로 바뀌어야 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는 ‘시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이른바 현대사회 도덕성 상실의 회복에 대한 출판계의 소명의식이, 동양고전의 사상속에서 새로운 윤리관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여진다.

새 판본 필요성과 상업적 계산 맞물려

한편으로 손쉽게 책을 내려는 출판사들의 속셈을 ‘동양고전’이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외국서적 번역서를 내기 위한 저작권계약의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동양고전’의 출판에는 따르지 않는다. 또 출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국내 필자의 이론서는 한정된 테다 수명도 짧고, 문예 필자는 더욱 발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동양고전’이라는 ‘드넓은 바다’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품은 ‘출판 寶庫’라 할 만한 것.

문제는 이러한 동양고전 번역작업이 출판의 ‘내실다지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전문가들이 총집결해서 오묘한 판본 하나 만들기도 벅찬 터에, 한 출판사의 역량으로 동양고전을 제대로 완역하는 작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다. 세익스피어 판본 하나에도 온갖 신경을 쓰는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출판내부의 여과장치가 너무 허술하지는 않은지 한번쯤의 새김질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엄밀한 선별을 통해, 질 낮은 판본을 가차없이 질책할 수 있는 출판풍토 또한 아쉽다.

— 김지원 기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걸망 속에 옷 두어 벌과 콘사이즈 하나만을
챙겨놓고 세계여행길에 오른 원담스님.

황당한 여행계획, 짧은 어학실력,
몇 푼 되지 않는 돈……

다소 우리를 불안케 하지만 함께 떠나보자.
재치와 배짱으로 이어지는 웃지 못할 사건들,
세계 곳곳의 문화에서 느끼는 남다른 감흥,

걸망 속에 세계를 담고

□ 원담 지음/값 3,500원

또 생생한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여행의 멋과 자유
그 모든 것들을 스님과 함께 담아 오자.
세계를 담은 걸망 속에 —

♣ 실수연발 원담스님 세계여행기!!



진신출판사 720-5990 · 1